

종교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 교육과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

신 광 철

한신대학교

〈요 약〉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건전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종교문화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은 여전히 호교론적 신앙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이와 같은 실정을 분석·고찰하는 한편,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종교교육의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하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종교교과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의 〈2007년 제7차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그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종교교과서의 미래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이 지니는 ‘종교문화교육’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여기에 더해, 〈2007년 제7차 교육과정 일부 개정〉에서는 ‘생활 속의 종교’,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 찾기’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제7차 교육과정 일부 개정〉에서 여전히 신앙교육의 측면도 함께 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은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공교육으로서의 ‘종교문화교육’과 ‘종단교육’을 일관성 없이 하나로 엮기보다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연합 프로젝트로서의 종교교과서 만들기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취지에 걸맞은 대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안 종교교과서를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해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한국종교교육학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종교교육, 공교육, 종교문화교육, 신앙교육, 종교 교과서, 7차 교육과정, 개정 7차 교육과정

I. 서론

현대인들은 이른바 디지털 지식정보화의 급류 속에서 인간성 상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전인교육(全人敎育)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상응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종교교육이다. 오늘날 정신교육 또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국민적 자본’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 종교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다방면에서 고조되고 있다. 첫째, 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종교’ 과목이 정규 교양 교과로서의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다. 둘째, 종교교육은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정책의 주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셋째, 종교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이 주목받는 만큼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은 여전히 특정 종교전통의 호교론(護敎論)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은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교’ 교과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중등학교 종교교육은 ‘종교문화교육(宗教文化敎育)’으로 자리 매겨지기보다는, ‘종단교육(宗團敎育)’의 성격을 여전히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²⁾

1) 김중서, 『종교교육 실태 분석: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I)』(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41-242쪽.

2) 윤이흠은 종교교육을 크게 ‘종단교육(宗團敎育)’과 ‘종교문화교육(宗教文化敎育)’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종단교육’은 “특정종교의 신념체계에 입각해서 인간의 완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며, ‘종교문화교육’은 “종교 일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은 물론 사회문화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7-8쪽.

한국의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이 ‘종교문화교육’으로의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교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종립학교라는 점이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애매한 교육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교육정책 당국은 종교 과목을 정규 교과화하면서도,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이 교육과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³⁾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이와 같은 실정을 분석·고찰하는 한편,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종교교육의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하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교 과목에 대한 〈제6차·제7차 교육과정〉 및 각 교육과정이 반영된 종교교과서의 현황이다.⁴⁾ 아울러, 최근의 〈2007년 제7차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그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종교교과서의 미래적 방향을 모색하여 볼 것이다.⁵⁾

II. 〈제6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당시 ‘종교’ 교과서의 문제점

한국 사회에서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전통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일련의 평준화 정책 수행 때문이었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 시작(1969년), 평준화 정책에

3)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은 사실상 헌법 정신과 상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현실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이면에는 근대 한국교육사에 특정 종교(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작용하였다.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교육 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 바, 기독교에 의해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에서 종교교육(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교육)은 핵심적인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교육정책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축적적 전통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부담은 현행 교육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서는,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종립학교의 ‘전교(傳敎) 지향적’ 종교교육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4) 종교 교과서 개발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 연구로는 김귀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5) 최근 정부가 새로운 중등학교 교육과정(제2011-361호, 2011.8.9)을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에 따르면, 종교 교과서의 위상이 ‘종교학’으로 바뀌었다. 본고의 성격이 종교 교과서의 개발의 현황을 교육과정의 영향 속에서 파악하고 미래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다른 학군제 도입(1974년), 대학입시에서의 내신성적 반영(1980년) 등 일련의 교육정책의 변화는, 종립학교에서 교수되어 온 ‘종교’ 과목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끔 만드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무시험제도에 따른 추첨 입학 제도의 결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 종립학교에 배정되는 다수의 학생들이 발생함으로써, 종립학교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신성적의 점수화와 그것에 근거한 상급학교 진학제도는 종교 교과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 요소로 부각되었다. 전자가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종립학교의 교육권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율배반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종립학교 종교교육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 내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 내지는 종교정책의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종교교육의 이와 같은 불안정한 위상은 교육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종교 교과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종교 교과에 대해서 교육정책 당국이 본격적인 지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1982-1988,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12.31)에서부터였다.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논리학·철학·심리학·교육학·종교 등 다섯 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다.⁶⁾

<제4차 교육과정>은 자유선택과목의 위상과 관련하여 복수 개설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이러한 단서 조항 설정에 종교교육과 관련한 복잡한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조항은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활성화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종립학교들의 종교 교과화 요청에 대한 대응책 차원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했다.⁷⁾ 종교 교과를 복수의 ‘자유선택과목’군에 포함시킨 시책은 향후 종교 교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육정책 당국은 공교육(公教育)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지녀야 할 ‘종교문화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충분한 정지 작업을 결여한 채, 종교단체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종교 교과의 성격을 불완전하고 과도적인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결과, 피교육자의 ‘선택권’과 교육자의 ‘교육권’의 상충이라는 이율배반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종교 교과는 <제5차 교육과정>(1989-1994,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3.31)에서 ‘교양선택과목’으로 범주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복수 개설 조항 단서가 제시되는 등, <제4차

6)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다른 4개의 교과에 ‘○○學’의 명칭이 부여된 반면, 유독 ‘종교’ 교과에만 ‘○○學’의 명칭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로서의 ‘종교’의 전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7) 실제로 <제4차 교육과정> 및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에 따르면, 1980년과 1982년 ‘기독교학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종교계 언론들이 종교교육의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고, 이에 당시 문교부가 자유선택과목의 지정을 적극 검토했다고 한다. 윤이흠, 『종교교육의 교육적 의미』, 『한국철학종교사상사(如山 柳炳德博士 華甲記念論叢)』(원광대학교 출판국, 1990), 937-938쪽.

교육과정〉의 기초가 대체로 유지되었다.⁸⁾

교육과정 정책과 관련하여 〈제6차 교육과정〉(1995-2001,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10.30)에서부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학’이 신설되었고, ‘종교’ 과목을 비롯한 각 과목의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개발·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목당 이수 단위가 2단위에서 4단위로 확대되어 교과목 교수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종교’ 과목의 교육 목표와 교수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교육 목표】 교양 선택 교과로서의 고등학교 ‘종교’ 과목은 학생들에게 종교에 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봉착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⁹⁾

위에서 인용한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따르면, 교육부의 종교 교과 교육과정안은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즉 ‘종교문화교육’과, 종립학교가 지향해 온 ‘종단교육’의 목표를 절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충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교육부에서 제시된 단원은 (1) 인간과 종교, (2) 세계 문화와 종교, (3) 한국 문화와 종교, (4) 종교 경험의 이해, (5) 현대 사회와 종교, (6)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 등 총 6개 단원이다. 이 가운데에서 제6단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특정 종립학교의 입장을 전제한 것으로서, 특정 종교전통의 ‘교리’라는 용어가 노출되어 있을 정도였다. 제1단원부터 제5단원까지의 내용이 ‘종교문화교육’의 취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제6단원은 이와 달리 ‘종단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비록 현실을 반영한 교육지책이기는 하지만, 교과로서의 ‘종교’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규 교과 과정으로 종교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고교 과정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비종립(非宗立)의 국공립·사립 고교에서 종교 교과를 설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6단원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선에서 종교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립학교 측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자면,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대표적인 ‘종교’ 교과서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간행 ‘종교’ 교과서는 6개 단원을 9개로 늘리면서 ‘종교 일반’의

8) 이 때, ‘생활경제’ 과목이 추가되었다.

9)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것.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환경과학』(교육부, 1995).

10) 정갑영 외,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122쪽.

내용(3단원)과 ‘기독교’의 내용(6단원)의 비중을 1:2의 비율로 조정하였다.¹¹⁾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간행 ‘종교’ 교과서는 단원을 15개로 늘리는 한편, ‘종교 일반’의 내용(9단원)과 ‘기독교’의 내용(6단원)의 비중을 3:2로 조정하였다.¹²⁾ 이러한 상황은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¹³⁾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 교과서들이 교육부의 지침에 비하면 훨씬 많은 분량을 특정 종교전통에 대한 교육으로 채운 것이다.

각 중립학교의 ‘종교’ 교과서가 이처럼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교육부의 정책의 모호했던 탓도 있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도, 교육의 관건이 되는 교과서의 발행에 대해 검정(檢定)이 아닌 인정(認定)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말았다. 각 종교전통별로 나름의 ‘종교’ 교과서를 가지는 한, 특정 종교전통 중심의 종교교육이 수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종교학자와 교육학자, 그리고 일선의 종교교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과서의 발간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본다. ‘종교’ 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도서’를 정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제6차 교육과정〉 적용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인정한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¹⁴⁾

-
- 11)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간행 ‘종교’ 교과서는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1) 인간과 종교, (2) 기독교의 경전, (3) 인류의 구세주 등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권은 (4) 한국의 종교, (5)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6) 그리스도교의 교리 등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7) 현대 사회와 종교, (8) 교회의 역사, (9)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등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단원·제4단원·제7단원을 제외한 6개의 단원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간행 ‘종교’ 교과서(1997년 2월 25일 초판 발행) 역시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① 인간과 종교, ② 가족 공동체와 종교, ③ 기독교와 성경, ④ 계약과 예언, ⑤ 교회와 선교 등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권은 ⑥ 사회 공동체와 종교, ⑦ 세계의 종교, ⑧ 교회와 종말, ⑨ 그리스도와 성령, ⑩ 현대 사회와 문화 등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⑪ 하나님과 인간, ⑫ 한국인의 삶과 종교, ⑬ 한국에 전래된 종교, ⑭ 현대 사회와 종교, ⑮ 세계 공동체와 종교 등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1단원·제2단원·제6단원·제7단원·제10단원·제12단원·제13단원·제14단원·제15단원이 ‘종교일반’에 관한 것이다.
- 13) 단원으로 간행된 불교교육연합회의 ‘종교(불교)’ 교과서의 경우, ① 인간과 종교, ② 세계의 종교, 그 전통과 사상, ③ 한국 문화와 종교, ④ 종교 경험의 이해, ⑤ 현대 사회와 종교, ⑥ 불교의 출발, ⑦ 깨달음의 세계, ⑧ 대승의 진리, ⑨ 불교의 윤리, ⑩ 한국의 불교, ⑪ 불교와 예술, ⑫ 불교의 신행, ⑬ 불교와 새로운 문화의 창조 등 전체 13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앞의 5단원까지가 ‘종교 일반’에 대한 것이다. ‘불교’에 대한 단원이 8개로 오히려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불교의 경우, ‘종교 일반’에 대한 논의를 전제한 후, 스스로의 전통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의 일관성을 보여주고는 있다.
- 14) 이 표는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정실(당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1〉 ‘제6차 교육과정’ 적용 당시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 인정도서 현황

종교 전통	교과서 명칭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기획 · 저작	발행
불교	종교(불교)	95-021(95.12.29)	불교교육연합회	도서출판 대원정사
	종교(불교)	95-022(95.12.29)	대한불교진각종 교재편찬위원회	도서출판 만다라
천주교	종교(천주교)	95-020(95.12.29)	가톨릭교육재단 협의회	분도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상	96-015(96.7.23)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 학교연맹
	종교(기독교) 중	96-016(96.7.23)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 학교연맹
	종교(기독교) 하	96-017(96.7.23)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 학교연맹
	종교(기독교) 상	96-073(96.12.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장로교 출판사
	종교(기독교) 중	96-074(96.12.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장로교 출판사
	종교(기독교) 하	96-075(96.12.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한국장로교 출판사
기타	종교 1	95-018(95.12.29)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미래문화사
	종교 2	95-019(95.12.29)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미래문화사

Ⅲ.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종교’ 교과서의 방향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위상이 서서히 정립되어 가기는 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7차 교육과정〉(2002-200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12.30)의 적용을 통해 해소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일은 종교 교과서 개발과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¹⁵⁾

전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은 “세계화 · 정보화 ·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 과학 · 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 · 산업 · 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에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따른 개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있다. 이러한 방향은 ‘종교’ 교과에도 적용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종교’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성격】 ‘종교’는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과목이다. (중략) ‘종교’는 인생에 대

15)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되었다. 교육부 발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참조.

8 종교교육학연구, 제37권

한 궁극적인 물음과 성스러운 가치의 이해라는 종교적 관심을 중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찰하여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목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른다.

【세부적인 목표】 (가)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 인격을 기르며, 자기 생활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종교적 가르침과 의식 및 공동체를 이해한다. (나)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인간이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 터전이면서 아직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는 우주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레) 외래 종교 사상을 수용한 과정과 한국의 무속 신앙을 이해하고, 건전한 종교 생활을 통하여 자아 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매)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인식하여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배) 특정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신앙심을 키우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위에 제시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 과목의 교육 내용 개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의 기본 방향에 바탕을 두면서, 〈제6차 교육과정〉의 ‘종교’ 교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된 가치가 ‘전인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은 세계화·정보화·다양화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의 함양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는 ‘종교’ 교과에도 반영되었다. 위에 제시된 세부적 목표에는 이러한 요소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종교’ 과목과 관련해서, 〈제7차 교육과정〉이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은 종교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세계관’(世界觀)을 형성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종교에 대한 지식’과 ‘보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좀 더 분명하게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려는 교육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종교’ 과목에 대한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지침을 비교·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¹⁶⁾

16) 〈표 2〉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양과목 교육과정 해설’ 가운데 ‘종교’편 제7장의 도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종교’ 편은 유위준(교육부), 정진홍(서울대), 김윤성(한신대)이 공동 집필하였다.

<표 2> 제6차·제7차 종교 교과 교육과정 비교

구 분	제6차 교육 과정	제7차 교육 과정	비 고
교육 과정의 구성	◦ 교육 과정을 최초로 구성 [구성 체제] 1. 목 표 2. 내 용 3. 유의점	◦ 교육 과정 구성의 체계화 [구성 체제] 1. 성 격 2. 목 표 3. 내 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 가	◦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화
성격	(공식적 제시 없음)	◦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 이해 ◦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한 건전한 종교관 정립을 위한 과목	◦ 종교 과목의 성격 명시
목표	◦ 총괄 목표 - 종교에 대한 지식과 보편적 이론 이해 -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극복 -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총괄 목표 -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 타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생활 태도 함양 ◦ 하위 목표: 6개 항목	◦ 학생 중심의 목표 진술 ◦ 구체적인 하위 목표 제시
내용	◦ 영역별 내용 (1) 인간과 종교 (2) 세계 문화와 종교 (3) 한국 문화와 종교 (4) 종교 경험의 이해 (5) 현대 사회와 종교 (6)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내용 체계 ◦ 영역별 내용 (1) 인간과 종교 (2) 종교 경험의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4) 세계 종교와 문화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6) 한국 종교와 문화 (7) 종교 공동체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내용 영역의 구체화 ◦ 보편적 종교 교육 내용 강화
교수 학습 방법	(공식적 제시 없음)	◦ 6개 항목	◦ 종교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적용
평가	(공식적 제시 없음)	◦ 5개 항목	◦ 다양한 방법의 평가

위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전에 비해 ‘종교’ 교과의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6단원에서 8단원으로 단원의 수를 늘리면서 체계를

재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6차 교육과정〉의 (1) 인간과 종교, (2) 세계 문화와 종교, (3) 한국 문화와 종교, (4) 종교 경험의 이해, (5) 현대 사회와 종교, (6)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의 단원을, 〈제7차 교육과정〉은 (가) 인간과 종교, (나) 종교 경험의 이해, (다)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라) 세계 종교와 문화, (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바) 한국 종교와 문화, (사) 종교 공동체, (아)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의 단원으로 재편하였다.

내용 면에서 볼 때, 〈제6차 교육과정〉의 ‘현대 사회와 종교’를 폐지하는 대신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종교 공동체’를 새로 설정한 바, 이는 현대의 종교문화를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접근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이라는 단원을 새로 설정하여, 이전의 교육과정이 보여준 해당 중립학교의 배경적 전통에 집중하는 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내용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제1단원과 제4단원(종교에 대한 인식론) 사이에 제2단원과 제3단원(구체적인 종교 현상)을 배치함으로써 종교문화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에 일정 정도 지장을 주었던 점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은 (가)단원과 (나)단원을 전제함으로써, 종교문화 이해의 체계화를 도모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서울시 교육청 인정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제7차 교육과정〉 적용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 인정도서 현황

종교 전통	교과서 명칭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저작	발행
불교	종교(불교)	02-042(02.01.08)	불교교육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천주교	종교(가톨릭)	02-041(02.01.08)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카톨릭문화원
개신교	종교(기독교) 상	02-035(02.01.08)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종교(기독교) 중	02-036(02.01.08)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종교(기독교) 하	02-037(02.01.08)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종교(기독교) 상	02-038(02.01.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한국장로교 출판사
	종교(기독교) 중	02-039(02.01.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한국장로교 출판사
	종교(기독교) 하	02-040(02.01.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한국장로교 출판사

위의 종교 교과서 중 불교(조계종)의 ‘종교(불교)’와 개신교(한국기독교학교연맹)의 ‘종교(기독교)’를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종교 교과서의 변화상과 한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교(불교)’의 경우, (1) 인간의 삶과 종교, (2) 세계의 종교, (3) 세계 종교의 사상과 특성, (4) 인간과 자연 그리고 종교, (5)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6)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역할, (7) 불교의 출발, (8) 깨달음의 세계, (9) 대승의 진리, (10) 불교의 윤리, (11) 한국의 불교, (12) 불교와 예술, (13) 불교의 신행, (14) 불교와 새로운 문화의 창조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불교)’는 머리말을 통해 “세계 여러 종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민족과 인류의 원대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했음을 밝히고 있다.

개신교(한국기독교학교연맹)의 ‘종교(기독교)’의 경우, 상중하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인간과 종교, (2) 세계 종교의 전통, (3) 기독교의 경전, (4)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상 상권). (5) 한국인의 종교, (6) 한국에 전래된 종교, (7)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8)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상 중권), (9) 현대 사회와 종교, (10) 교회의 역사, (11) 기독교인의 생활, (12) 기독교인의 미래 등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기독교)’는 머리말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하여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됨과 동시에 일상생활과 성경의 교훈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한편, “종교가 인간의 생활에 주는 의미를 깨닫고 완전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며, 건전하고 확고한 인생관을 소유한 창조적이며 결단력 있는 인격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종교(불교)’의 경우, 총 14장 중 종교 일반에 대한 부분이 6장, 불교에 대한 부분이 8장으로, 여전히 불교에 대한 부분이 양적으로 우세한 실정이다. ‘종교(기독교)’의 경우도 총 12장 중 종교 일반에 대한 부분이 5장, 기독교에 대한 부분이 7장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분이 양적으로 우세한 실정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의 공식 명칭이 ‘생활과 종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교과서의 제목을 ‘종교(불교)’ 및 ‘종교(기독교)’로 명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과서의 명칭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명칭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제시한 ‘생활 속의 종교’ 내지는 ‘생활 속에서 종교 읽기’ 등의 의도가 종교교육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2007년 제7차 교육과정 일부 개정>에 반영되었다.

IV. <2007년 제7차 교육과정 일부 개정>의 내용과 종교 교과서의 전망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이하, <2007 개정>으로 표기)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9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¹⁷⁾ 이러한 논의는 종교 교과목에도 반영되었다.

1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7쪽.

〈2007 개정〉에서도 종교 교과에서 ‘신앙 교육’과 ‘교양 교육’을 병행한다는 기존의 이중적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적 교육이 좀 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공존하고,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공존하는 교실 안의 현실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¹⁸⁾ 〈2007 개정〉에서 제시된 종교교과서의 단원 구성체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07 개정〉의 단원 구성 체계

영역	내용
인간과 종교	•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 • 앎과 믿음 • 종교의 의미와 역할
종교 현상의 이해	• 여러 가지 인생 문제 •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 경전의 의미와 해석 • 종교 의례와 규범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 종교적 차이의 맥락 • 종교들의 비교 • 종교의 특성 이해 • 세속 사회와 종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 다양한 인간관 • 종교적 인간관 • 종교적 자연관 • 종교와 과학의 관계
세계의 종교와 문화	• 유교 • 도교 • 불교 • 그리스도교 • 이슬람교 • 기타 종교
한국의 종교와 문화	• 한국 토착 종교의 이해 • 한국 불교의 이해 • 한국 유교와 도교의 이해 • 한국 그리스도교의 이해 • 한국 신종교와 기타 종교의 이해
종교 공동체의 이해	•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 종교의 사회적 기능 •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 종교적 인격 형성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 경전과 교리 • 종교적 생활 •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 나의 종교관 점검

〈2007 개정〉은 ‘생활과 종교’ 과목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한다. ‘종교’ 과목이 추구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신앙심을 배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포괄적이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 종교를, 그리고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한다. 셋째,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종교들을 살피으로써 특정 종교의 신자는 자신의 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다른 종교들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고, 무종교인은 종교에 담긴 인간의 모색과 진정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8)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105쪽.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대담론보다는 ‘생활 속의 종교’,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 찾기’와 같은 미시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은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성찰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종교적 가르침, 종교 의례, 종교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교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이 처한 삶의 정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을 인식하는 나만의 시각을 정립한다. 넷째, 한국의 토착 종교와 전래 종교의 전개 및 상호작용과 이들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건전한 종교관의 확립을 통해 자아 실현과 삶의 목표 정립을 도모한다. 다섯째,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인식하여 그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여섯째, 각 종단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특정한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해당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 신앙심을 키우고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세부 목표 역시 ‘생활 속의 종교’,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 찾기’와 같은 실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 개정〉의 이러한 취지는 ‘이해’보다는 ‘습득’을 지향하는 점, ‘신앙심’을 넘어서 ‘인격’의 확충을 지향하는 점 등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이해’보다는 ‘습득’을 지향하는 점, ‘신앙심’을 넘어서 ‘인격’의 확충을 지향하는 〈2007 개정〉의 취지를 종교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내용’ 중심의 ‘전달’, 더군다나 특정 전통 중심의 주입식 교과서 서술로는 이러한 취지를 구현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생활 속의 종교’,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 찾기’는 결국 ‘세계 속의 나의 삶’, ‘세계 속의 나와 이웃의 관계 읽기’, ‘세계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기’로 구체화될 것이다. ‘나’의 종교 ‘만’ 알아서는 그러한 ‘지혜’를 ‘삶’ 속에서 터득하기 어렵다. 종교 교과서 안에 그러한 ‘지혜’가 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딱한 사상, 복잡한 역사, 빈다한 의례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예술 작품을 통해 구현된 종교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의 교육과정 비교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성격	-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 이해 -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한 건전한 종교관 정립	-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일반 이론 습득 우주의 의미나 삶과 죽음 같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해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	-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수정 - 분단과 통일 관련 내용 등 종교 교과와 무관한 내용 삭제
목표	- 총괄 목표 -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 타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생활 태도 함양	- 총괄 목표 -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교관 정립 -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확충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를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수정
내용	- 영역별 내용 - 인간과 종교 - 종교 경험의 이해 -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 세계 종교와 문화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 한국 종교와 문화 - 종교 공동체 -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영역별 내용 - 인간과 종교 - 종교 현상의 이해 -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 세계의 종교와 문화 - 한국의 종교와 문화 - 종교 공동체의 이해 -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 항목들 간의 유기성이 보완 되도록 순서 재편 - 보편적 교양 교육으로서 종교학적 교육 내용 강화 - 각 영역별 내용의 분량 축소 및 표현 수정
교수 학습 방법	6개 항목	6개 항목	부분적인 표현 수정
평가	5개 항목	4개 항목	평가 기준이 모호한 항목 삭제

IV. 결 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제7차 교육과정〉은 종교교육이 지니는 ‘종교문화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7 개정〉은 ‘생활 속의 종교’,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 찾기’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

정) 역시 한국의 중등학교 종교교육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이율배반성(二律背反性)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제7차 교육과정〉의 세부적 목표 가운데 상당수는 종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의 현실을 일단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과목 교육과정 해설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히 신앙적 종교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춘 건전한 교양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종교학적 종교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으로도 어느 정도의 종교학적 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신앙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선 종단 학교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종교학적 종교 교육’(종교문화교육)과 ‘신앙적 종교 교육’(종단교육)을 병행하던 기존의 종교 교육과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이러한 관점은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종교’ 과목의 향로(向路)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종교 과목은 여전히 종립학교라는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립학교가 중등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종립학교는 현실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체제에 있어서, 종립학교 역시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현실과 함께,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교육’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전제할 때, 종교교육 또한 공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공교육이 종교교육을 수행할 때, 그 가르침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며, 공교육이 종교를 인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길이 ‘규범적’인 것이 아닌 ‘서술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⁹⁾

끝으로, 종교교과서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종단이 종교교과서를 발행함에 있어 ‘종교문화교육’과 ‘신앙교육’을 공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중이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적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교문화교육’과 ‘신앙교육’을 내용적 일관성 없이 무리하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내기보다,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연합 프로젝트로서의 종교교과서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둘째,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취지에 걸맞은 대안 종교교과서를 여러 주체들이 모여 만들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주체가 되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9)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중고교 도덕 교육 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종교연구』 2(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25-28쪽.

참고문헌

- 김귀성. 「종교 교재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22.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6.
-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 김중서. 「종교교육 실태 분석: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_____. 「현대 한국 고교의 종교 교과서 연구」 『종교학연구』 26.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회. 2007.
-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 _____. 「종교교육의 교육적 의미」. 『한국철학종교사상사 (如山 柳炳德博士 華甲記念論叢)』.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0.
-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환경과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중고교 도덕 교육 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종교연구』 2.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한문, 교련, 교양 선택 과목 교육 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원고접수 : 2011년 11월 27일 1차 심사 : 2011년 12월 6일 게재승인일 : 2011년 12월18일
연구자소개 : 신광철

- ① 전공 : 종교학, 문화콘텐츠학 / 소속 : 한신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 종교학과 문화비평, 한국종교, 종교교육, 문화콘텐츠
 - ③ 주요논저 : 『문화콘텐츠학입문』, 『천주교와 개신교』, 「다문화사회와 종교」, 「원불교 문화원형의 의의와 활용방안」, 「포스트모던과 신종교」, 「한국 개신교 성지의 현황 및 활용방안」
 - ④ E-mail : iskc@hs.ac.kr
-

Abstract

Present Situation & Task in Developing Textbooks of ‘Religion’: Focusing on Effect of Educational Process

Shin, Kwangcheol

Hanshin University

Concern for the importance of religious education is getting heightening in Korean society these days. Religious education as public education aims at religious-cultural education as a part of healthy civic education. However, religious education of secondary school of Korea is still strongly tinged with faith education as apologetics.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earch for desirable path of religious education on the basis of already arranged content, while analyzing and considering this current condition of religious education at Korean secondary schools. I suggest some concrete cases for this analysis. First, I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textbooks of ‘religion’ applying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 Second, I examined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 and tried to find a future direction of the textbooks on the basis of the content above.

The character as ‘religious-cultural education’ of religious education is emphasized in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 In addition,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 tried to take concrete shape of “religion in one’s daily routine”, “finding meaning of life through religion”. Despite, the aspect of faith education is also focused in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and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 This twofold situation is a practical cause not to guarantee completely the identity of religious education as public education.

I submitted some proposals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in this essay. First, we’d rather make texts of ‘religion’ as combined project to encourage specialty of all concerned than put together ‘religious-cultural education’ as public education and ‘denominational education’ without consistency. Second, I ask all subjects concerned with this issue to cooperate for making textbooks of ‘religion’ to satisfy the intent of religious education. I think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will be an adequate main force for this project.

Key words: Religious Education, Public Education, Religious-Cultural Education, Faith Education, Textbook of 'Religion',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 The Amendment of 7th Educational Curriculum